

과학기술로 혁신고지 선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타이호 라이트'에서 가장 깊이 잠수한 '교룡호(蛟龍號)'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과학기술 성과를 산출한 데서 괄목할만한 기업 혁신과 산업 전환을 이루기까지... 장쑤는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학기술혁신 구동 전략을 실시하고 발전 동력을 전환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최적화시켰다.

과학기술 혁신 '장쑤 속도' 창조
1분 작동하면 72억 명이 계산기로 32년 동안 계산하는 것과 맞먹는다. 타이호 호숫가에서 세계 최초로 100페타플롭스를 넘는 국산 슈퍼컴퓨터 '선웨이(神威)·타이호 라이트'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가져다 주었다. '타이호 라이트'는 과학기술 면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의 '장쑤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혁신형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

시키고 혁신구동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하며, '혁신에 힘 모으기'를 제시하기까지 혁신 발전은 장쑤 경제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2016년도 중국과학기술 표창대회에서 장쑤는 국가상 51개를 수상해 중국 2위를 차지하였다. 나노, 슈퍼컴퓨터, 생명과학 등 분야의 중점 기술과 전략제품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가 및 성급 과학기술상을 수상한 성과 중 절반 이상은 기업이 주도하거나 참여해서 완성하였다.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 연구팀이 발표한 <중국 지역혁신능력 평가보고서 2016>에 의하면 지식 창조, 지식 획득, 기업 혁신, 혁신한 결과 혁신성과 등 5개 지표 중 장쑤 기업은 기업 혁신 면에서 중국 1위를 계속 차지하고 다른 면에서는 모두 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결코 '혁신고지'의 전부가 아니다. 장쑤는 성급 이상 하이테크산업단지 46개 있고 그

중 국가급은 18개로 중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쑤기업의 특화된 신청 건수와 허가 건수도 중국 1위를 차지하고 국가급 첨단기술산업 인큐베이터 수와 육성 중에 있는 기업 수, 면적에 있어서도 다년간 중국 1위를 차지하였다. 작년 사회 전체 연구개발 투자는 2010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여 GDP의 2.61%를 차지하였다.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장쑤성 과학기술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장쑤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율은 61%에 도달하였다.

'생태 시스템'으로 '강력한 자기장' 구축

쑤저우 두수호(獨墅湖) 호숫가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은 2002년부터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다'. 차례로 쑤저우 대학원생타운, 두수호 고등교육구, 두수호 과학교육혁신구이다. 이곳은 폴드스

프링하버아시아, 중국과학원 나노연구소 등 일류 과학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스포드, 하버드 등 30여 개 유명 대학교가 설립한 분교, 연구개발센터 등이 있다. 혁신생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를 유치하며, 기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성장 주도업종을 탄생시킴으로써 '연쇄효과'를 형성하였다. 우시는 사물인터넷 리더십인재를 유치하고 1천억 위안급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세계 사물인터넷산업 감제고지를 선점하였다. 쑤저우는 중국과학원 나노연구소를 유치하여 세계 마이크로나노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8개 지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전 세계 혁신자원을 집결하면서 장쑤는 첨단 플랫폼 구축에 비중을 두었다. 장쑤 남부 국가자주혁신시범구는 사회 전체 연구개발 투자가 2.8%에 도달하여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국가급 난징장베이

신구는 혁신 발원지, 선도구, 주요 성장점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급 이상 하이테크산업단지 46개는 4.8%의 토지면적으로 25% 이상의 지역생산 총액과 35%의 첨단기술산업 생산액을 창조하였다.

혁신의 힘으로 산업 전환 추진
'핵산(核酸)을 하러거든 룬산으로 오라'. 10년 전, 칭화과학기술원, 룬산과학기술연구원과 룬산하이테크산업단지는 작은 핵산 기술을 주제로 하는 세계 첫 번째 과학기술단지를 협력해서 건설하였다. 현재 4개 품종이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말에 출시되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룬산에 대표로 하는 중국 작은 핵산산업은 이미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하였다.

쑤저우 하이테크산업단지 '국가 지적재산권 서비스산업 집결발전 시범구'는 서비스기관 약 80개를 집결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업무 심사, 조기 경보와 분석 등 일련의 비

교적 온전한 지적 재산권 서비스사를 형성하였다.

굿베이비(好孩子)그룹, 난루이 지바오(南瑞繼保), 쑤닝윈상(蘇寧雲商) 등 장쑤의 전통기업 또한 과학기술 혁신을 토대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난징장베이 신구는 직접회소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스마트디자인센터를 건설하고 있는바 칩 디자인, 웨이퍼 제조 등을 포함한 온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할 예정이다. '칩의 도시'가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장쑤는 현재 신소재, 신에너지, 첨단장비제조 등 유망 산업을 둘러싸고 산업발전을 제약하는 100가지 핵심기술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기술수준이 높고 산업 선도 역할이 강한 중점 과학기술 성과 100개를 전환함으로써 1천억 위안급과 100억 위안급 첨단기술 특색산업기지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新华报业传媒集团 主办

总第 256 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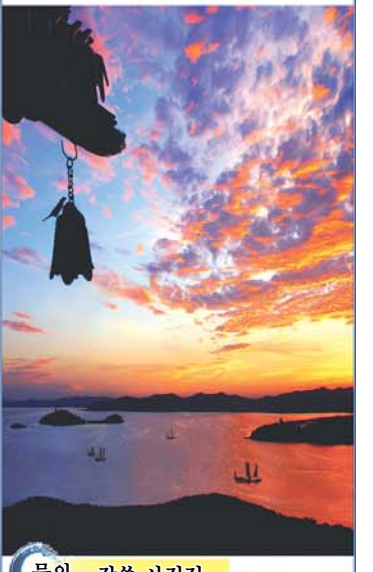
联系电话:0086-25-58680903

E-mail: xhfw@xhby.net

欲知更多新闻, 请扫描右侧的二维码。



中江网英文频道



물의 온도 장쑤 사진전

연(戀)
우시시 위안터우주 루딩산(鹿頂山)은 저녁노을과 옛 시절의 처마가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이곳에는 역사와 인문이 모여있고 여러 대가들이 명필을 남겼다.
【탱웨이·田強偉 / 촬영】

후통 장강대교 항로교(航道橋), 중앙아치 연결



10월 22일, 세계 최대 도로·철도 겸용 강철 아치교인 후통(상하이-난통)장강대교 중앙 아치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후통대교의 전 구간 개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 후통대교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인바 그 때가 되면 난통에서 상하이까지 가차로 한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또한 상동성 동부, 장쑤 북부와 남부, 상하이, 저장성 동부 지역 간의 가장 편리한 철도수송 통로가 될 예정이며, 연해지역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사진은 연결된 텐생항(天生港) 항로교이다.

장쑤 '해외 장쑤의 벗(海外江蘇之友)' 연락센터 28개 신설

10월 15일,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과 해외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0회 '해외 장쑤의 벗' 행사 개막식이 난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내외의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내빈 12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고 발전을 모색하였다. 개막식에서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은 신설한 28개 '해외 장쑤의 벗' 연락센터에 대해 간판 수여식을 가졌다. 한편 '해외 장쑤의 벗' 연락센터 대표 8명이 발언하고 조화로운 교민센터 건설을 함께 탐색하였다.

신설한 28개 '해외 장쑤의 벗' 연락센터에는 불가리아 중국상회, 그리스 화교회(華僑華人)총회, 스위스 화교회(華僑華人)총회, 홍콩 화교회 등이 포함되었다. 연락센터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예정인바 장쑤의 대외 연락과 인재 유치, 경제무역 협력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고 화인화교를 위해 봉사한다. 또한 교포들이 거주국 주류 사회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해외 화교회원과 장쑤 여러 분야에서 장쑤와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도록 도와준다.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 왕화(王華) 주임은 '해외 장쑤의 벗'이 1998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 각지의 화교화인, 홍콩·마카오·타이완 동포와 사회 각계 인사의 대대적인 지지와 열정적인 참여를 얻었다고 하면서 장쑤 대외 친목을 도모하고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는 중요한 창구, 교량과 플랫폼이 되었다고 하였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해외 장쑤의 벗' 행사는 4월 동안 개최된다. 개막식이 끝나면 내빈들은 난징, 양저우 등지로 가서 국무원 교민업무판공실이 최초로 간판을 수여한 중시(중국어)번역기지 건설을 견학하고 국무원 교민업무판공실 교민혜택 프로젝트인 중국전통의학 보급행사에 참여한다. 우창홍·吳昌紅

한국 충청남도 공예품 장쑤 교류전, 난징서 개최

한국 충청남도 공예품 장쑤 교류전이 25일 난징에서 개최되었다. 충청남도 공예협동조합의 인솔 하에 한국 공예가들은 난징민속박물관에서 작품을 전시하였다. 장쑤성 대외우호협회의 지지 아래 난징민속관과 한국 충청남도, 전라북도 간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은 난징에서 '한지문화공예전', '중·한서화예술

교류전'을 개최하고 장쑤는 한국에서 '장쑤성 민속문화전', '무형문화재 교류전' 등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류전에는 도자기, 나무, 섬유, 금속 등 재질로 만든 공예품 30여 점이 전시되었다. 기술이 정교하고 기품이 있으며, 한국 전통문화 특색을 갖췄는바 한국 충청남도 공예품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다. 장웨이창·張會清

장쑤성 긴급 뉴스

장쑤 산업교수 선임 예정

장쑤는 최근에 장쑤성 기업에서 과학기술형 기업인을 대학교 '산업교수'로 선임할 예정인바 임용기간은 4년이다. 그 대상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천인계획', '만인계획', '백천만 인재 프로젝트' 국가급 인사, 성시 과학기술기업인, 상장회사와 국가 첨단기술기업 주요 담당자, 성급 이상 공정기술연구센터 담당자 등이다. 산업교수는 관련 경비를 지원 받으며, 지도 교수 신분으로 석박사 대학원생을 지도하게 된다. 동시에 소속 기업과 대학교 간의 프로젝트 공동 연구 및 과학기술 난제 해결, 국가 및 성급 과학연구프로젝트 신청, 첨단기술 혁신성과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 춘천예술대표단, 장저우서 공연

최근 피아노곡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겨울>의 선율 속에서 한국 춘천예술대표단 고전음악연주회가 장저우시 문화예술관 리센터 소극장에서 서막을 열었다. 장저우시와 춘천시 예술가들은 함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국경 없는 음악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었다.

소개에 따르면 장저우시와 춘천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6년 동안 경제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두 도시의 예술가들은 미술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함께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도시 간 문화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하였다.

이번 공연에서 장저우시 예술가들은 작은 합주 '경사스러운 강남', 여성 독창 '제스민꽃', 피리 독주 '쑤저우행' 등을 통해 강남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주었다. 한국 예술가들은 플루트 '소협주곡', 노래 '아리랑', 바이올린 '집시의 노래' 등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리장장·李宗長

쑤저우, 로봇산업사슬 초보적으로 형성

서비스 로봇이 슈퍼, 식당, 은행 로비를 오가면서 판매원, 배달원과 정보 대사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와 재활 로봇은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준다... 최근 2017로봇 국제표준·기술·산업 보고회가 쑤저우에서 개최되었는데 다양한 기능의 로봇은 회의 참석자들의 감탄을 연신 사기냈다.

대회 기간에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대표위원회회의의 6개 로봇 국제 표준화 실무진, 그리고 중국표준화 관리부서, 과학연구기관, 로봇제조기업의 대표 500여 명이 쑤저우에 모여 로봇 국제표준, 기술과 산업을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쑤저우 로봇산업은 초보적인 규모를 형성하였다. 200여 개 중견기업 중에 로봇 본체 개발 및 시스템 집성 기업, 서비스로봇 및 특종로봇 기업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제조업체까지 모두 포함되어 온전한 로봇산업사슬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작년 쑤저우 로봇산업 규모는 1천억 위안을 넘었다.

노년 부부 36쌍, 합동결혼식 개최

최근 쑤저우공업단지 후동지역 사회사업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노년 부부 36쌍을 위해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다. 노인들은 레드 카펫을 밟고 합혼주를 마시며 로맨틱한 순간을 함께 보냈다.



최근 제2회 해외중식번영 정상포럼이 양저우에서 개최되었는데 미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 등 40개 국가에서 온 화교 리더 122명이 포럼에 참석하여 중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화이양요리를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발전시킬 데에 관해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과 해외교류협회, 양저우시 인민정부와 양저우대학교가 공동으로 주

화이양(淮揚)요리,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으로 해외중식번영 정상포럼 양저우서 개최

최하였다. 세계중식업연합회 우리(武力) 주석은 <중국요식발전추진>을 발표하고 양저우 유명 요식업기업인 예춘(冶春)요식주식유회사 천원(陳軍) 총경리는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에서 분점을 성공적으로 개설한 노하우를 공유하였

다. 화이양요리 무형문화재 전승인(周曉燕)은 중식 세계화에서 부딪힌 문제를 분석하고 중식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불안정한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해외 중식당은 약 60만 개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럼

에도 해외 중식당은 보편적으로 요리사 부족하고 업계 자율성 제고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국무원 교민업무판공실은 최근 몇 년간 '중식번영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그 취지는 해외 중식업 수준을 제고하고 중화음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데 있다. 2016년 1월, 국무원 교민업무판공실은 양저우에 '중식번영기지'를 설립하고 학력 교육 등을 통해 해외 교포의 중식사업을 지원하였다. 장쑤성 교민업무판공실 쉬카이신(徐開信) 부주임은 장쑤는 양저우대학교를 토대로 화이양요리 연수반과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며, 화이양요리 시범센터를 건설하는 등 방법으로 해외 중식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하였다. 우창홍·吳昌紅

'중국어는 언제 배우더라도 늦지 않아요!'

이전에 간 그녀는 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친 연용핑(顏永平)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온라인 강의를 여러 과목 개설한 연설 전문가였다. 선생님이 물었다. "아드님이 너무 훌륭합니다. 중국어도 정말 잘합니다. 어머니는 중국어를 하십니까?"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아들에게 연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재생하게 했고 단번에 빠져들게 되었다. 선생님의 강의내용은 알아듣기 쉽고 외국인들의 관심 분야이며, 외국인들이 중국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중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한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 '목(木)'자나 여자 '여(女)'자에 다른 글자를 합치면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 뜻도 다르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독학만으로 그녀는 HSK 5급 시험에 합격하였다. 나중에 그녀는 또 한 국 동대학원에서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그리고 중국 유학을 결심하였다. 중국 친구도 사귀고 중국어 실력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아들한테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배워 장학금도 타

고 HSK 6급 시험에도 합격하고 싶습니다. 또 베이징으로 가서 대학원 공부도 하고 싶고 나중에 중·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양 여사는 난징에 유학을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유학을 10여 일 앞두고 그녀는 허리디스크에 걸렸다.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그녀는 아파서 길도 제대로 걸지 못하였다. 그녀는 험사리 낮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9월 달에 난징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난징시법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학교 측에 제때에 등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지 않으면 신

용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픔을 참고 휠체어에 앉아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다행히 한국항공사와 중국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난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난징에 도착해서 며칠 쉬고 나니 허리디스크가 나았다. 그녀는 고집이 있었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해냈다고 기뻐했다.

중국어 외에도 양 여사는 일본어를 독학하고 있다. 중년으로 접어들어 그녀는 어디를 가든 어학 교과서를 들고 다니며 목 마른 사슴이 샘을 만난듯이 열심히 공부한다.

우창홍·吳昌紅 글/사진

장쑤의 한인사회